

젊은이들: 우리의 미래와 현재

Kathleen Molaro, FYYA (프란치스칸 젊은이들과 청소년)위원회 의장

"젊은이들은 불과 같다. 우리는 불을 붙이고, 빛을 가져오고, 따뜻함을 주지만,
소멸될 위험에 처해 있다.
오늘 우리는 깜박거리고 있다. 우리는 꺼져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거나, 확대되어 모든
것을 태우는 산불이 될 수 있다.
교회는 이불꽃을 잘 피워서 제대로 된 화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Percival Holt, 인디언 가톨릭 청소년 운동, 국가 회장

우리는 종종 젊은이들을 "우리의 미래"라고 부른다. 비록 그 말에 진실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젊은 가톨릭 신자들을 교회의 미래라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들은 또한 우리의 "현재"이다. 진정하고, 활기차고 권한을 부여하는 교회; 거룩함에 대한 부름과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관계에로 우리 모두가 응답하도록 초대받는 교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기꺼이 배우고, 용감하고 겸허하게 우리의 젊은 형제자매들과 나란히 걸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어떤 나이이든지, 우리의 세례는 재속 프란치스칸으로서의 서약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단결시킵니다. 나이, 이데올로기, 삶의 환경, 심지어 성격 특성까지도 우리를 분열시키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복음을 험악한 세상으로 가져 오려는 바람이 우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느님과 신앙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

최근 두 차례의 모임에서 많은 아름답고 영감을 주는 인용문이 나왔다. 14,000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시노드 (로만 가톨릭 교회의 주교회) 열리기 전의 조사와 회의에 참여했고, 36 명의 젊은이들이 지난달 열린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 시노드에 참석했다. 다음은 그들의 마음과 심정을 다소 이해하게 하는 몇 가지 인용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위치가 있고, 신자로서의 어떤 규범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다양성 안에서 각자의 목소리가 고려되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
(Silvia Retamalesô 칠레의 주교의 청소년 국)

과거에는 섬 주민들이 젊은이는 노를 젓고 노인은 별과 해류를 사용하여 인도하면서 섬에서 섬으로 항해하면서 어떻게 살고 일을 하였는지 나눈 후에 한 젊은이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젊은이의 말을 듣고, 불가피한 폭풍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면서 같이 노를 젓기 시작할 때까지는 우리의 카누 (가족배)는 정처 없이 표류할 것이다. 우리 노인들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 카누를 조종한다면 우리 젊은 신자들은 노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카누를 힘차게 저어나가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Moenono-Kolio - 태평양 제도, 카리타스 국제 청소년 포럼)

"그래, 우리도 존재해!" 한 젊은 자매가 말한다. "우리는 명확함과 신빙성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기는 세대이다. 매끄럽고 사치스러운 발표는 무시당하고 진솔한 증언은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진다."(성 바오로의 딸 **Benedicta Turner** 수녀)

"우리는 갈등 해결의 일부가 되고 싶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그들의 개인적 성취의 저자이자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Yithzak Gonzalez - 파나마 청년국 서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되어 우리 삶과 관계 속에서 참된 빛의 근원을 보게 하자."
(**Nicole Perez**, 필리핀의 교리 교사)

"젊은이들은 기독교가 참되고 아름답고 성취 가능성을 알기 위해 거룩함의 예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Carmelite 수사 Neil Conlisk, 30 세)

이 인용문들은 우리 젊은 세대가 교회의 필수적이고 필요한 부분이 되고자 요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회칙은 프란치스칸으로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재속 프란치스코회 사명의 증인과 도구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6 조) 많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가 그 사명의 일부라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질문, 의심, 좋은 생각,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만큼 용감하다면, 그들이 자신의 소명을 분별하고 신앙을 키우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용기 있고 겸손하다면, 우리의 의무는 듣고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